양식진주, 양식불안

(창31:1~29)

17.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18.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새
20. 그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21.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22.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23. 삼 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24.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칠 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25.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26.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27.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28.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29.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제 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양식진주, 양식불안>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양식진주, 양식불안'
조개 안에 모래알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면 조개가 고통스러워서 분비물을 내고 그 분비물이 막을 형성하면서 진주가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의 미키모토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양식진주를 발명하게 되는데, 실제로 진주를 양식할 때

에 100개의 조개에 이물질을 집어넣으면 살아남는 조개는 5%에 불과하답니다. 95%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조개에 이물질을 넣으면 아파서 분비물을 내고 그것이 진주를 이룬다고 쉽게 이야기하지만, 조개로서는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이지요.
미키모토가 양식진주를 만들어 성공하면서 19세기 말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유럽에서는 모든 보석상들이 들고 일어나서 데모를 하고 난리를 쳤지만, 지금은 전 세계 진주 시장의 거반을 양식진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키모토만 양식진주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에게 세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첫째 소원은 물론 자기가 만든 양식진주가 많이 팔리는 것이었고, 두 번째 소원이 발명왕 에디슨을 직접 만나서 회견하는 것이 소원이었고, 세 번째 소원은 세상 모든 여자가 진주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에디슨을 만나서 양식진주를 주게 됩니다.
그때에 에디슨이 했던 첫 마디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발명하지 못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다이아몬드와 진주다. 그런데 당신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던 이 진주를 발명하고 완성하였다. 이것은 세계적인 경이다”라고 감탄을 했답니다.

양식진주라고 하지만 진짜진주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진주조개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 이물질을 집어넣는데, 조개껍질을 3~7mm직경으로 잘라서 조개껍질과 조개 살 사이에 집어넣으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분비물을 내고 진주막이 형성이 된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도 얼마나 껄끄럽고 아픕니까? 그런데 조개가 살아서 움직일 때마다 7mm 가량 되는 이물질이 들어있으니 아파서 자꾸 분비물을 내는 거예요. 그 분비물이 엉겨서 이물질을 둘러싸고 단단해지면서 진주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양식불안은 도대체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등장을 해서 한 것이 무엇일까요? 선악을 판단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을 넘어가도록 유혹했고 그 결과 사람이 선악을 판단하면서 자기에게 좋다고 여기는 것은 반드시 마음에 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양식작업입니다. 이물질을 넣은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만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들어오십니까?
내가 선악을 판단하지 않고 나의 주체성을 주체적으로 포기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와 주체성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의 주체성을 거부하는 것이고 선악판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체성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게 되면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에 들리는 것 중에서 좋은 것들을 판단하면서 반드시 내 마음에 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양식진주를 위해서 조개껍질을 열고 껍질과 부드러운 조개 살 사이에 이물질을 집어넣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의 이물질이 생겨서 아픔이 나와요. 그 아픔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의 걱정이고 불안입니다. 마음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겁니다. 두려움이고 원망입니다.
한마디로 기쁨으로 충만했던 에덴동산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이유는, 바로 미키모토가 양식진주를 성공한 것처럼, 마귀의 양식불안이 나에게 성공한 것입니다.
정말 마귀는 발명의 왕입니다. 에디슨은 저리 가라죠. 그리고 이 발명은 아무도 발명인 줄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이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을 때에는 이 양식 진주이야기가 어떤 희망을 주기 위한 비유로 등장할 때가 많습니다.
아픔의 분비물을 분비하면서 그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은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므로 고통을 참고 잘 견뎌내자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잘못 된 거예요.
양식진주 속으로 이물질이 들어가서 아파하면서 분비물을 분비하여 진주가 형성된다는 이 내용은 절대로 우리의 희망을 위한 비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그 방법 그대로 양식불안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원래 불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마귀에 의해서 양식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불안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불안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는 것은 다 마귀의 양식작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양식불안입니다. 양식진주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걱정이 왜 생기고, 불안이 왜 생기고, 두려움이 왜 생기고, 아픔이 왜 생깁니까?
이물질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담고 있기 때문에 고통과 걱정과 불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야 하는데 안 벌리고, 번 돈은 또 잃어버릴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수중에 들어온 것을 마음에 담으면 잃을까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분비물이 나오는 겁니다.
수중에 없는 것을 마음에 담으면 그것을 못 이룰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루

는 것으로 내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고 하니 그걸 이루지 못하면 나는 루저가 되어버리고 인생의 패배자라고 생각합니다.
못 이룰까 두려워하고 수중에 있는 것들을 마음에 담으면 잃어버릴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바로 양식불안이라는 것이고, 이 세상 것을 마음에 담는 것이고 선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바로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어요.

야곱이 이제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에 "나는 벧엘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망을 갑니다.
라반이 삼 일 길 떨어져있는 곳에 머물러 있는데, 라반에게 아무 말도 안하고 20절에 "가만히 떠났더라"고 하면서 22절에 "도망한지 삼 일 만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6~7절에서 야곱의 라반에 대한 원망이 나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열 번이나'
이 말은 그대로 열 번을 바꿨다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바꿨다는 유대인의 어법입니다.
2~3번 바꾼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얼룩진 것, 점박이, 아롱진 것 다 야곱 것이라고 계약을 해놓고, 야곱의 양들이 많아지니까 얼룩진 것만 가지라고 했든지 점박이만 가지라고 했든지 그렇게 바꾸었던 것 같아요.
8절에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삯이 되리라 하면 온 양 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삯이 되리라 하면 온 양 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라반의 말에 대해서 점박이를 많이 나오게 하셨든지, 얼룩진 것을 많이 나오게 하셨든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15절에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이런 모든 이야기를 할 때에 라헬과 레아도 라반을 원망하면서, 아버지 라반이 자기들을 팔아먹고 자기들의 재산을 다 훔쳐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든 라반에 대한 원망은 사실 귀담아 들을 것이 없어요.
라반은 물론이거니와 라헬과 레아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선민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시는 것을 제3자 입장에서 자기를 도우시는 것을 봅니다만, 문제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라반에 대하여 원망하는 것은 라반도 야곱과 자기 딸들이 한 것만큼 원망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20년 전에 에서에게 쫓겨서 혈혈단신 라반에게로 피신 온 것을 받아주었고, 20년 동안 두 딸을 주고 딸의 몸종인 두 시종도 주고 11손자가 태어나고 야곱의 재산이 막대하게 불어났습니다.
어디서? 라반의 집에서.
여러분 중에 조카나 친척의 자녀를 양육하며 살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면 말하지 마세요.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조카를 키운다든지 남의 자녀를 내가 데리고 있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라반의 집이 밧단아람인데 거기서 20년 동안 목동 일을 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과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까?
원망할 거리가 없어요. 라반이 사람이 좀 그렇더라도 누구나 이만큼은 다 치사하죠.

원망할 것 없고,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야곱은 왜 또 도망가야 하느냐?
자기 말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서요? 하나님이 라반 삼촌의 그런 약삭빠른 변덕에도 불구하고 주권적으로 재산을 몰아주신 분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도망갑니까?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오더니, 이제는 자기의 외삼촌이고 장인이자 자기 아이들의 외할아버지인 라반을 피해서 또 도망을 갑니까?
도망가는 이유를 내일 본문 3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야곱의 아내인 라헬과 레아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와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와 아내라는 같은 선상에서 비교가 됩니다.
아내를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도망갔다고 하는데 아내뿐만 아니라 재산도 들어있었겠죠.
아브라함은 아내를 미리 마음에서 떠나보냅니다.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마음에서 내보냅니다. 최악의 상황을 미리 받아들여버립니다.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이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아내를 지키지 못할 것을 알기에 마음에서 떠나보냅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아내도 지켜주실 줄로 알고 마음에 계속 아내를 담고 있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양식불안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나보냈

어요.
그러므로 외삼촌을 피해서 도망하는 야곱과 비교할 때에, 아브라함의 경우는 생판 남이고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이방나라 애굽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에게서도 아브라함은 도망가지 않아요. 이삭도 마찬가지로 리브가를 누이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나가라고 할 때에야 나가지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 땅에서 엄청난 부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왜 이렇게 도망을 다니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서 떨어야 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마귀의 양식불안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라헬과 레아 두 아내가 들어가 있고 자식들이 들어가 있고 재산이 마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물질이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분비물이 나옵니다. 그게 불안이고 두려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내를 자꾸 내보냅니다. 왜냐하면 이물질이고 마음 안에 두어서는 안 될 것들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므로 두려움이 없고 불안이 없습니다. 오히려 옆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자꾸 나가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다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내게 아픔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면 마음속에 이물질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양식불안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이끄시고 선민으로 택하신 것은 야곱이 어떠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부족함을 전제하시고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동행하기 시작한 그 지점으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보였다는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만 계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물질이 들어와 있지 않은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예쁜 딸을 낳았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담는다면 이물질이 들어간 겁니다.
이제 그 딸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딸이 성장해서 이상한 놈하고 결혼 할까 그 딸이 밤중에 다닐 때에 누가 건드리지 않을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물질이 들어오면 반드시 두려워하고 걱정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사업을 마음에 집어넣고, 돈을 마음에 집어넣고, 건강을 마음에 집어넣고… 어느 것 하나 이물질이 아닌 것이 없어요.
부드러운 마음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다 걱정이라는 분비물, 불안이라는 분비물, 두려움이라는 분비물이 나오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면 에덴이 이루어지

지 않고, 복지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 마귀의 양식불안 작업이 진행되는 중이기 때문이고 이물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는 꿈과 비전이 이물질이라는 것을 몰라요. 열심히 한다고 하잖아요. 그 열심의 이면을 뒤집어보면 두려움입니다. 그런 꿈과 비전을 정해놓고 달려가지 않으면 내 인생이 루저가 될까 두려워합니다. 루저라는 기준은 이 세상이 만든 기준이에요. 이 세상의 기준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꿈과 비전? 좋아하지 마세요. 그게 이물질이고 마귀의 양식불안입니다. 양식불안 작업이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개 속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진주가 형성되는 것을 아픔과 고통과 걱정과 두려움이 생길 때에 그것을 희망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아픔을 느낄 때에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것은 어떤 아픔일까요?
이물질을 받아들여서 느끼는 아픔과 걱정과 불안은 마귀의 진주이고, 마음에 받아들여서 내 살이 되어버린 그것들을 떼어낼 때의 느끼는 아픔이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끌어안고 아파하며 나오는 분비물인 걱정 불안 두려움 원망은 마귀에게 진주입니다.
라반이 뭐라고 해도 야곱은 감사밖에는 할 게 없었어요.
야곱이 자기 밑에 조카가 들어왔다면 라반만큼 해줬겠습니까? 라반 밑에서 자기가 부자가 되고 11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조카가 자기 밑에 들어온다면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어요?
야곱은 라반보다 더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고 원망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에 이물질이 들어와서 분비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다 떼어내야 돼요.
마음에 예쁜 딸을 집어넣었으면 떼어내야 하고, 아브라함처럼 아들인 이삭도, 땅도, 사라도 떼어내야 하고,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의 안정도 다 떼어내야 합니다.
떼어내려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느껴야 될 모든 아픔을 다 흡수해버리신 겁니다. 다 빨아들이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담으려고 해도 보이지 않아서 담지 못하니 십자가 사건을 주셔서 마음에 하나님을 담게 하십니다. 그러면 마음의 살에 붙이듯이 마귀가 양식불안을 위해 우리 속에 집어넣었던 모든 이물질들이 다 떨어져나갑니다.
어떨 때? 십자가를 기억하고 있는 동안에.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또 다시 마음에 이물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또 야곱처럼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내가 언제 도망만 다니느냐고 말하겠지만, 마음에 이물질을 집어넣습니다. 자식이든지 건강이

든지 사업이든지 그런 것들을 마음에 집어넣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생각하고 행동하잖아요. 그게 다 도망 다니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걱정하면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게 다 도망 다니는 것입니다. 맨날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걱정한다? 도망 다니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 도망 다니는 것입니다.
불안해한다? 도망 다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문제 때문에 심사가 뒤틀어진 바로 왕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억제하지 않으신다면 당장 죽일지도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언제 죽일지도 모르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미련스럽게 그들이 내밀 때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시기해서 나가라고 할 때가지 버티고 있습니다.
야곱은 가라는 소리도 안하고 갈 줄도 모르고 있는데 몰래 도망갑니다. 에서 피해서 도망 왔다 또 도망을 갑니다.
이렇게 살지 맙시다.
이렇게 사는 이유는 단 한가지인데, 마귀의 양식불안 작업에 걸려들어서 마음속에 이물질을 계속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리 사랑스럽고 아무리 좋아도 내 마음에는 전부 이물질입니다.

어떻게 들어 온 이물질을 제거하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타락이전 같으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됐겠죠.
타락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악과 대신에 십자가 나무에 달린 열매이신 주님을 먹는 겁니다. 십자가를 늘 기억하므로 이물질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마귀의 불안양식 작업이 초장부터 차단 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고, 이미 들어와 있다면 말씀 듣고 기도하며 십자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서 고통 없이 떨어져 나가요.
자식이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 떨어져 나갈 때에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십자가 붙잡으면 그 아픔 없이 떨어져나갑니다. 십자가 붙잡고 있는 동안에만.
한 순간이라도 놓치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이물질이 들어와서 마귀의 양식불안이 시작되고 불안이라는 마귀가 좋아하는 진주가 나타납니다.
십자가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평강이라는 진주, 에덴(기쁨)이라는 진주, 사랑이라는 진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진주 장사가 이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갖고 있던 모든 진주를 다 버렸다고 합니다. 갖고 있던 진주는 내 사업, 내 재산, 내 건강, 내 자녀, 내 인생의 비전인데 하나님이라는

진주를 얻기 위해서 다 버리고,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에 이식하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꽉 붙들고 언제든지 시시각각 이물질 삽입을 노리고 있는 마귀의 양식불안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평강의 진주, 화평의 진주, 에덴의 진주를 만들어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마귀의 양식불안과 양식두려움과 양식걱정이 끊임없이 양산되는 양식장으로서의 삶이 중단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마음에 기억함으로 야곱이 아니라 야곱이 도달해야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경지가 단 얼마라도 빨리 도달될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